

# 광주시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차질 우려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미비로 사업 공백 가능성 市 "빠른 절차 진행 요청...지연 최소화 대책 마련"

광주시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실증밸리확산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올해 1단계 5개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단계로 진입할 계획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광주 'AI 실증 밸리 확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선정부터 녹록지 않은 데다, 다음 달 대상으로 선정된다

해도 조사 기간이 약 8-10개월 소요되는 만큼 당초 광주시가 목표로 한 내년 초 사업 착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3분기(9월)에 재신청해야 하고 조사 기간, 통과 여부 등 변수도 있어 착수 시기도 불투명하다. 예타 신청은 1년 4번, 3·6·9·12월에 한다. 실증밸리 확산 사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한 집적단지 조성에서 이은 AI 2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6천억원(국비 3천966억원, 지방

비 1천365억원, 민자 600억원)을 들여 실증 중심의 AI 혁신 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실증 혁신 생태계 조성, 실증-사업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핵심이다. 광주시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예타조사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성격도 연구 개발(R&D)에서 비(非) R&D로 바뀌었다. 실증 단계에서 연구보다는 지역 AI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사업화 지원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략수정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면

서 결과적으로는 광주시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면서 기재부에 빠른 절차 진행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AI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단계 사업과 별도로 신규 재정사업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포기하지 않고 정부에 지속 요구하기로 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올해 3월 예타를 바로 신청했다면 사업 시기가 단축됐겠지만 예타 면제에 대한 과거부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예타 진행 과정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려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고흥 재동서원 고문서' 道유형문화재 지정 달마사 예념미타도량참법 등 2건 지정 예고

전남도는 4일 "조선시대 무반가문의 고문서인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를 비롯한 고문서 7점과 전적 2책 등 총 73점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어진 무반가의 고문서다. 조선시대 관료에게 관직이나 품계를 내릴 때 발급하는 문서가 주를 이룬다. 고흥 여산송씨의 입향과 정착, 임진왜란기 의병 관련 활동 등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수군 훈련 절차를 기록한 병서인 '수조홍기(水操功記)'와 송나라 충신 악비에 관한 책인 '정충록(精忠錄)',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공신에게 발급한 녹권인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등이 전해지는데

이는 다른 서원이나 문중 자료가 학문이나 문학 분야가 주를 이루는 데 비해 군사 분야라는 점에서 역사·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김지호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재동서원 고문서는 고흥지역 여산송씨 가문의 내력과 조선시대 무반직의 변천 및 군사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랑스러운 선조 모습을 연구하고 찾아내 가치 있게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여수 달마사 예념미타도량참법'과 '장흥 대원사 소장 불교전적'도 도 유형문화재 지정 및 명칭 변경을 예고했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양서원기자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관심 4일 오전 광주 동구청 1층 로비에서 시민들이 인문도시 홍보부스를 둘러보며 인문학 관련 서적 등 팸플릿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동구는 지난 1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적 가치를 되새기고, 모든 정책의 인문 지향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사는 행복한 '인문도시 동구' 선포식을 가졌다. /김애리 기자

## 실외 사육견 증성화수술 전액 지원

### 광주시, 5개 자치구 90마리 대상

광주시는 4일 "5개 자치구와 함께 '실외 사육견 증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실외사육견(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 방지, 유실·유기견의 들개화 예방, 개물림 사고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 위협과 농작물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외 사육견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실외 사육견 소유자다. 동물 등록을 해야 증성화 수술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동물은 등록과 사전검사를 진행한 후 증성화 수술을 하게 된다. 증성화 수술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치구별로 지정 동물병원을 안내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90마리며 수술 전 검사 비용과 수술 비용, 후처치 비용 등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남태승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의 개체수 관리를 통해 유기견·유실견 발생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강기자

## 전남산림자원연구소→'전남산림연구원' 명칭 변경

### 오독실 원장 "임업 소득화 등 새로운 산림 가치 창출 매진"

전남도산림연구원이 전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일자로 기관 명칭을 '산림연구원'으로 변경하고 다양한 미래 임업 수요에 걸맞은 산림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1922년 3월 25일 임업요장으로 시작해 1987년 임업시험장으로 승격됐으며 1998년 산림환경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치산사업 분야까지 업무가 확대됐다. 2008년 완

독수목원을 통폐합하면서 산림자원연구소로 명칭 변경했다가 이번에 '산림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금까지 연구원의 명칭은 그때마다 임업 연구의 나아갈 방향과 시대 상황을 반영했고 이번 명칭 변경 역시 미래 임업 연구를 융복합시대에 걸맞게 산림복지 휴양서비스 연구와 산림바이오 산업화 연구, 임업 소득화 등 산림 여건 다변화에 따른 임업 연구의 방향성을

폭넓게 담고 있다. 현재 산림연구원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으로 지정돼 연간 30만명이 찾는 숲 명소다. 도민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숲 교육 및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임업후계자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산림자원의 가치를 발굴하고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단지를 연내 준공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임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과 목재 친환경간 조성을 위한 '목재누리센터 건립' 등 산림 시책사업 추진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독실 산림연구원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산림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재정립함으로써 미래 임업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市, 치매극복 감동 후기·영상 공모전

광주시는 4일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시절 종사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광주 치매극복 후기·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과 역경, 보람과 감동 등의 사례를 통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지역치매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은 광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를 극복한 긍정적 경험, 치매 예방 실천에 관련된 내용으로 후기(A4용지 2장 이상 권장, 3장 이내)나 영상(40초~2분 이내)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8월 2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선강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뻐낸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참여기관: 광주광역시, 전남도, 광주경찰청, 전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인안보건공단, GTCG,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남도교통수원,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손해보험협회